

4월 학부모 간담회 사전질의 & 답변

영훈초등학교

Q1. 하루 중 영어 사용 비중이 궁금합니다. (말하기 관점에서) 절반 정도는 되는지요?

A1. 타 학교 대비 2배 이상의 영어를 도구로 활용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어민 담임교사가 함께 상주하고 있어 수업 외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영어 사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생활지도를 영어로 병행하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영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영어 학습을 넘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2. 학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 중이신데 혹시 채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2. 2023학년도부터 학교알리미(가정통신문)와 학급 알림을 ‘하이클래스(Hi-Class)’ 앱이라는 동일한 플랫폼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은 ‘e알리미’, 알림장 앱은 학급마다 담임교사마다 다르게 사용되었음.)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안내사항은 함께 게시되어, 학부모님들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안내할 내용은 학교 전체 문자로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원어민 교사의 경우 Seesaw 또는 Google Classroom 사용이 익숙하여, 영어 수업 및 관련 안내는 해당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3.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3. 우리 학교의 운영 특성상, 학급별로 세부적인 시간표를 알림장을 통해 하루하루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표가 매주 달라지기 때문은 아니며, 한 주간의 알림장을 살펴보면 일정한 주간 루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과 신입생 학부모 연수 때, 학급 시간표를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며 자세히 안내드린 바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개별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4. 각 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분기별, 혹은 학기별로 사진과 함께 한 번씩 안내를 해주실 수 있나요?

A4.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목 및 교육활동에 대해 사진으로 안내드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수업 중 사진 촬영이 잦아질 경우,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나 집중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사는 수업 진행에, 학생은 활동 참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부 활동은 사진 촬영 및 외부

공유에 민감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의 보호자 동의 여부도 고려해야 하므로 제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과목, 모든 시간에 교사가 사진 촬영과 동시에 수업 진행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 미술, 실과 등 활동 중심 수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사진 제공이 늘어나면 오히려 교육활동의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수업의 질을 유지하고자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급에서는 사용 중인 플랫폼을 통해 수업 활동 사진을 일부 공유해 드리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학부모 공개수업’, 6월에는 ‘학부모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과 활동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님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5. 영어 팀티칭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5. 영어 팀티칭 수업은 담임 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의 다른 원어민 교사와도 함께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14명씩 그룹별로 나누어 절반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하는 형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발음과 표현, 수업 방식에 노출될 수 있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본교 모든 영어 수업은 14명씩 그룹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Q6. 체육 시간은 영어로 진행되는 건지 한국어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영어 외 기타 수업에서도 영어로 같이 이루어지는지 등 설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6.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필수 교과 수업은 한국인 담임교사 또는 전담 교과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창체)과 같이 협업이 필요한 수업에서만 코티칭(co-teaching)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수업은 영국 유학(EPL 축구코치 경험자)을 다녀온 체육 전담교사를 초빙하여 원어민 선생님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실제로 코티칭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단순히 영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Cambridge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문학, 수학, 과학, 사회, 체육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을 영어로 함께 다루는 통합형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육과정의 틀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영어 노출과 활용 기회를 넓히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질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Q7. 북 레포트(책나무 꿈나무, 리딩 챌린지)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중간에 중간 점검을 한 달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으로 해서 밀리지 않고 아이들과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실 수 있나요?

A7. 북 레포트 활동은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아이들이 밀리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현재는 학년 및 학급별로 운영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말씀해주신 중간 점검(예: 2주 또는 한 달 간격)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일정을 통일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Q8. 현 학년 포함 영어수업 교재나 학년별로 수업하는 교재, 커리큘럼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8. 현재 아이들이 영어 수업에 사용 중인 모듈북(Module Book - IB교육 기반 본교 원어민 교사가 직접 편집한 책)을 통해 수업에서 어떤 콘텐츠가 다루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영어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및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학기 초 학부모 총회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원하실 경우 영어 교무실에서 별도로 상담이나 설명의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Q9. 영혼은 학부모 반 대표 제도가 없나요?

A9. 현재 영혼초등학교에는 학부모 반 대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학부모님께 역할이 집중되기보다는, 모든 학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 형식적인 대표 체계보다는 학급별 알림, 가정통신문, 간담회, 설문,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학부모님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3월 학부모회 구성 변경안 동의 투표에서 365명이 투표하여 312명이 현재 방식으로 운영을 희망하여 변경하게 되었음.)

학교는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교육활동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10.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나 학교 행사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 되나요?

A10. 기본적인 안내는 하이클래스(Hi-Class) 앱을 중심으로 가정통신문 또는 알림 형태로 학급에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 시 학교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하여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급 단위의 자원봉사나 행사 협조 요청은 담임교사를 통해 학급 알림장을 활용해 세부 내용이 안내되며, 학교 차원의 큰 행사나 전체 학부모 대상 활동은 사전에 가정통신문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담당교원이 자세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